

제 4 교시

# 사회탐구 영역(윤리와 사상)

성명

수험번호

3

1

1. 다음을 주장한 사람이 강조할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오늘 하루가 당신에게 힘든 날일 수도 있다.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이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. 그 선택의 순간이 그냥 지나가버리게 하지 말자. 잃어버린 기회, 저지른 실수에 대해 너무 실망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자. 오히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.

- ① 사회적 관습과 규범에 순응한다.
- ② 상징 체계를 통하여 문화를 전승한다.
- ③ 본능적 욕구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한다.
- ④ 자유 의지에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한다.
- ⑤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한다.

2.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?

- 부처, 법, 승가(僧伽)에 귀의하는 사람은 바른 지혜에 의해 사성제(四聖諦)를 관(觀)해야 한다.
- 애욕의 물결은 사방으로 흐르고 욕정의 덩굴은 싹이 나고 있다. 그 덩굴이 생긴 것을 보았다면 지혜에 의해 그 뿌리를 잘라라.

- ① 무명(無明)과 애욕이 고통의 원인이다.
- ② 원인[因]과 조건[緣]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.
- ③ 팔정도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행 방법이다.
- ④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.
- ⑤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자아가 진정한 자아이다.

3. 갑,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. 을이 갑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자기의 욕망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허용하고, 욕망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.  
을: 사유하고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참모습이다.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안녕이나 쾌락이 아니라 영혼의 탁월함이다.

- ① 각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.
- ② 참된 행복을 위해 덕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진리 판단의 근거를 감각적 경험에서 찾아야 한다.
- ④ 개인에 따라 선(善)의 기준이 다를 것을 깨달아야 한다.
- ⑤ 부와 명예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.

4. 갑, 을 모두가 반박할 주장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윤리적 인간은 모든 생명을 도와주라는 명령에 따르고, 살아 있는 어떤 것도 해치지 않습니다. 그에게는 생명 그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.

책임의 본질적 영역은 동시대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불확정적인 미래입니다. 우리는 생명이 살 수 있는 미래를 파괴하지 않아야 합니다.



< 보 기 >

- ㄱ. 인간과 달리 자연은 단순한 물질일 뿐이다.
- ㄴ.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정언 명령이다.
- ㄷ. 자연은 인간이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이다.
- ㄹ.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선이고, 파괴하는 것은 악이다.

- ① ㄱ, ㄴ    ② ㄱ, ㄷ    ③ ㄴ, ㄷ    ④ ㄴ, ㄹ    ⑤ ㄷ, ㄹ

5. 고대 중국 사상가인 갑, 을이 <사례>에 나타난 A의 행위에 대하여 제시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: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한다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, 집안과 집안이 서로 다투지 않을 것이다.

을: 공손하되 예(禮)가 없으면 번거롭고, 신중하되 예가 없으면 남이 두렵게 여기고, 용기가 있되 예가 없으면 사회를 어지럽히고, 바르되 예가 없으면 처지가 절박해진다.

<사례>

A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아버지의 신주(神主)를 모시고 초막에 거처하며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올리는 일을 정성스럽게 행하였다.

- ① 갑: 과도한 의례를 행한 것으로 사회의 이익을 저해한다.
- ② 갑: 조상에게 인의(仁義)의 도리인 효를 실천한 것이다.
- ③ 을: 진정한 사랑인 인(仁)이 없는 겉치레에 불과하다.
- ④ 을: 인위적 규범을 따른 것으로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다.
- ⑤ 갑, 을: 아름다운 풍속에 따라 가족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.

6. 갑, 을, 병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풍성한 식탁이 아니라 명석한 사고가 쾌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. 참된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.

을: 여러 쾌락들을 확실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 쾌락의 양이 적더라도 어느 하나의 쾌락을 분명하게 선호한다면, 그 쾌락은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이다.

병: 쾌락과 고통은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,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 행위로 인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.

- ①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인가?
- ② 행복한 삶과 도덕적 삶은 별개의 것인가?
- ③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중시해야 하는가?
- ④ 개인의 쾌락을 위해 공공 생활을 회피해야 하는가?
- ⑤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?

7. 그림은 한국 불교 사상가와의 가상 인터뷰 장면이다. (가)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- ① 선정(禪定)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합니다.
- ② 세속에서 벗어나 중도(中道)를 실천해야 합니다.
- ③ 관심(觀心)을 통해 고정된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.
- ④ 좌망(坐忘)과 심재(心齋)를 통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.
- ⑤ 거경(居敬)을 바탕으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합니다.

8.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할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참된 사람은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고 되돌아감을 거부하지도 않는다. 의연히 오고 의연히 갈 따름이다.
- 참된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 보내지도 않고 맞이하지도 않는다. 다만 변화에 응할 뿐 간직하지 않는다. 그러므로 능히 외물(外物)에 얽매이지 않는다.

- ① 사욕을 없애기 위해 예법을 실천한다.
- ② 옳은 행위를 계속하여 호연지기를 기른다.
- ③ 상대적 분별에서 벗어나 제물(齊物)을 지향한다.
- ④ 허심(虛心)으로 시비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한다.
- ⑤ 감각적 경험을 통해 사물의 참모습을 파악한다.

9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행복 원리와 도덕 원리를 구별하는 것은 양자가 대립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. 순수한 실천 이성만 행복에 대한 모든 욕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. 오직 의무가 문제일 때 행복을 고려하지 않을 뿐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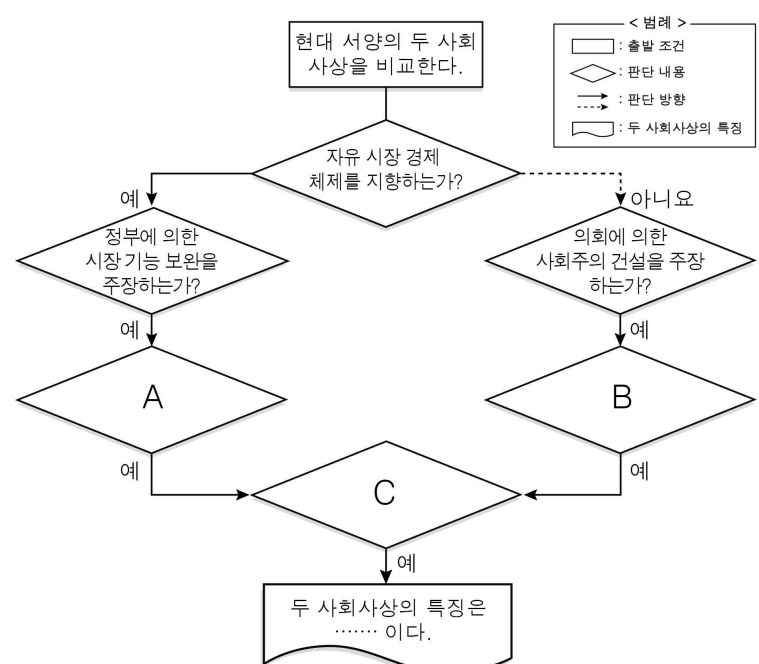
을: 최고의 행복은 이성을 완전히 발휘하는 데 있다. 우리는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을 관조함으로써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.

— < 보 기 > —

- ㄱ. 갑은 도덕을 행복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한다.
- ㄴ. 을은 자연의 인과 질서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.
- ㄷ. 갑은 자유 의지의 존재를 인정하지만, 을은 부정한다.
- ㄹ. 갑, 을은 모두 이성을 인간과 자연의 본성으로 본다.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ㄱ, ㄴ, ㄹ
- ⑤ ㄴ, ㄷ, ㄹ

10. 그림의 A~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

- ① A: 국가의 모든 권력 기구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보는가?
- ② A: 복지 제도 축소 및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지지하는가?
- ③ B: 누구나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 사회를 추구하는가?
- ④ B: 폭력 혁명에 반대하고 점진적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가?
- ⑤ C: 경제 침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가?

# [윤리와 사상] 사회탐구 영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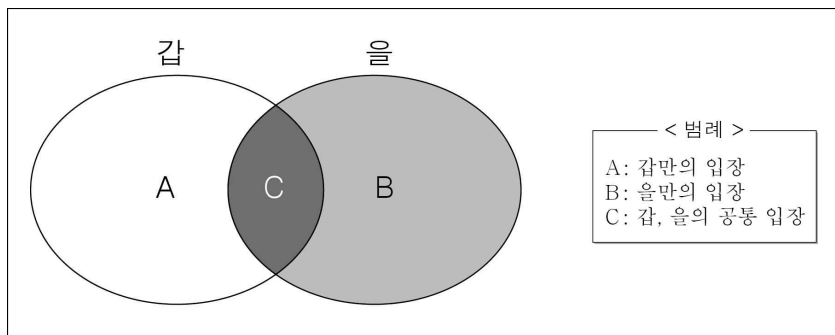
3

[11 ~ 12] 갑, 을은 조선 시대 사상가들이다. 물음에 답하시오.

갑: 본연의 성(性)과 기질의 성이 다르듯이 사단과 칠정에도 구별이 있다. 주자는 “이(理)에 동정(動靜)이 없다면 기(氣)가 어찌 스스로 동정하겠는가?”라고 말하였다. 대개 이가 동(動)하면 기가 좇아서 생(生)하며, 기가 동하면 이가 좇아서 발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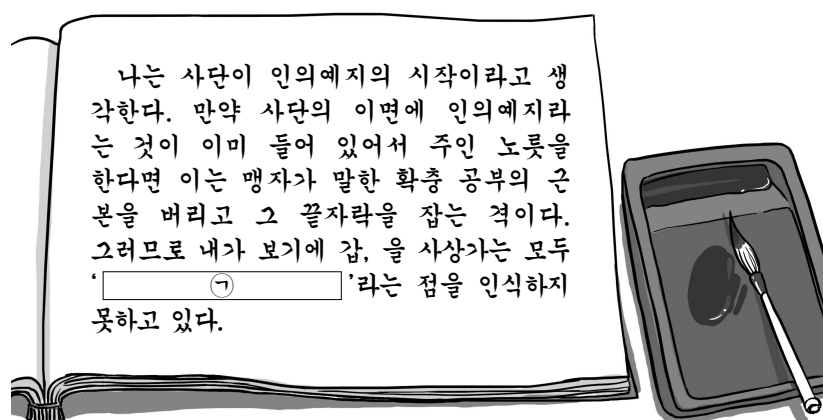
을: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(兼)한다. 이런 까닭에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. 주자의 “이에서 발한다, 기에서 발한다.”라는 말은 ‘사단은 오로지 이만을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다.’라는 뜻일 뿐이다.

11. 갑,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, A ~ 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? [3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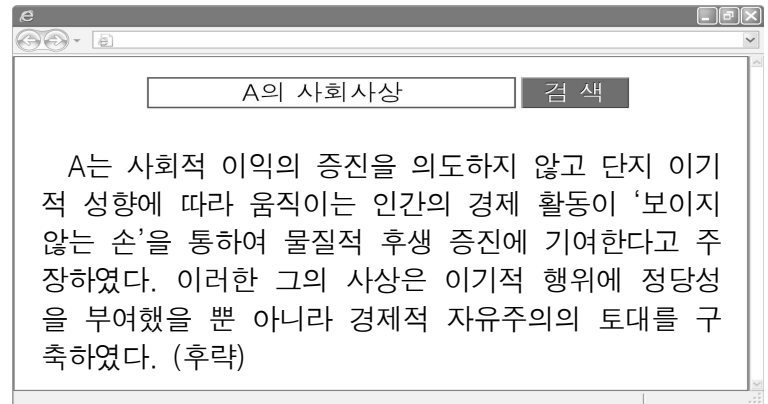
- ① A - 사단은 칠정의 순전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.
- ② A - 사단은 이가 발한 성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정이다.
- ③ B - 사단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서 나타난 순전한 정이다.
- ④ B -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은 모두 이가 발해서 드러난 것이다.
- ⑤ C - 마음의 작용은 이의 발현과 기의 발현으로 구분될 수 있다.

12. 그림은 위의 갑, 을과 견해를 달리하는 조선 후기 사상가의 가상 일기이다. ㉠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- ① 인의예지를 회복하려면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.
- ② 인의예지는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.
- ③ 사단의 확충을 위해서는 모든 욕구를 억제해야 한다.
- ④ 사단은 인의예지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이다.
- ⑤ 사단을 갖추려면 선을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.

13. 그림은 사회사상가 A에 대한 검색 화면이다. A의 사상적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

- 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.
- ②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위기의 원인이다.
- ③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.
- ④ 개인의 이익 추구는 공동선의 달성에 배치되지 않는다.
- ⑤ 적극적 자유의 보장이 없는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하다.

14. 서양 사상가 갑의 관점에서 <문제 상황>의 K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인간의 본성을 인식할 신(神)이 없기 때문에 인간 본성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. 인간이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주체적 존재일 뿐이다.

<문제 상황>

부모님은 K에게 회사 경영자가 될 것을 강하게 권하시지만 K는 문학 비평가가 되고 싶다. K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니 부담이 되고, 자신이 과연 문학 비평가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면서 진로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.

- 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진로를 선택하렴.
- ②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자세로 진로를 선택하렴.
- ③ 신이 부여한 사명을 따른다는 자세로 진로를 선택하렴.
- ④ 자신의 이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렴.
- ⑤ 스스로가 결단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진로를 선택하렴.

15.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: 태극은 천지 만물의 이(理)이다. 하늘과 땅 속에 태극이 있고, 세상 만물 각각에 태극이 있다. 양의 기운을 낳는 것도 이이고, 음의 기운을 낳는 것도 역시 이이다.

을: 사육에 가려지지 않은 마음이 곧 천리(天理)이다. 천리의 순수한 마음을 부모를 섬기는 데 펼치면 곧 효도이고, 임금을 섬기는 데 펼치면 곧 충성이다.

- ① 마음 밖에서 따로 사물의 이치를 구해서는 안 된다.
- ② 지식과 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.
- ③ 천리를 인간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.
- ④ 이론 공부에 치우쳐 현실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.
- ⑤ 하늘의 이치가 만물에 깃들어 있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.

16. 대화의 ㉠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우리는 자아의 개체성과 독창성을 극대화하고, 각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며, 각자가 지닌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.

을: 우리의 정체성은 특정한 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. 제 입장에서 볼 때, 당신의 생각은 ‘ ㉠ ’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

- ① 자유의 배타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한다.
- ② 배려와 관용의 덕목을 개인에게 강요한다.
- ③ 개인이 지닌 자율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한다.
- ④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.
- ⑤ 독립성의 가치보다 연대성의 가치를 중시한다.

17. 고대 동양 사상이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인의예지는 마음 밖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마음속에 있던 것이다. 그런데 다만 이것을 사람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.

을: 인간의 본성을 따르고 본래의 감정에 따르면 반드시 천하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. 스승에 의한 감화와 예의에 의한 인도가 있어야 천하가 평화롭게 된다.

- ① 갑: 인간의 본성이란 선악을 선택하는 자유 의지이다.
- ② 갑: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규범이 필요하다.
- ③ 을: 인간의 본성을 교정해야 도덕 사회가 이루어진다.
- ④ 을: 타고난 본성을 따른다면 덕을 좋아하기 마련이다.
- ⑤ 갑, 을: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.

18. 다음은 어느 고대 서양 사상의 주장이다. 밑줄 친 ㉠~㉣에 대한 이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며,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하다. 덕은 인간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, ㉠ 지성적 덕과 ㉡ 품성적 덕이 있다. 전자에는 이해력, 철학적 지혜 등이 있고, 후자에는 절제, 용기 등이 있다. 품성적 덕을 갖추려면 정념을 잘 조절하여 ㉢ 중용을 유지해야 하는데,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㉣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.

- ① ㉠은 교육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.
- ② ㉡은 정념을 제거함으로써 형성된다.
- ③ ㉢은 모든 행위와 감정에 존재한다.
- ④ ㉣은 ㉡의 구체적인 예에 해당한다.
- ⑤ ㉣은 ㉢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덕이다.

19. (가)~(다)는 근대 한국 신흥 종교 사상들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(가)	사람은 한울님을 몸과 마음에 모시고 있다. 사람이 곧 한울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한울님과 같이 해야 한다.
(나)	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(相生)의 도(道)로써仙境(仙境)을 열며, 말 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고쳐야 한다.
(다)	일원(一圓)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 부처님의 깨우치신 마음이며 일체 중생의 본래 마음이다. 이러한 일원을 믿음의 대상으로 모셔야 한다.

- ① (가)는 유교를 바탕으로 서학을 도입하고자 하였다.
- ② (나)는 사농공상(士農工商)의 신분 질서를 중시하였다.
- ③ (다)는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의 분리를 강조하였다.
- ④ (가)는 불교, (나)와 (다)는 도교에 토대를 두고 형성되었다.
- ⑤ (가), (나), (다)는 차별이 없는 평등 사회를 만들하고자 하였다.

20.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. 학생 답안 ㉠~㉣ 중 옳지 않은 것은?

#### [수행 평가]

○ 문제: 서양 사상이 갑, 을, 병의 입장을 비교하시오.

갑: 진정한 행복은 도덕적인 덕이 아니라 신에 대한 관조를 통해 성취된다.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(善), 곧 신이다.

을: 지상의 국가는 자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신을 경멸함으로써, 천상의 국가는 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을 경멸함으로써 형성된다.

병: 신앙인은 누구나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고 사제(司祭)가 될 수 있다.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.

○ 학생 답안

㉠ 갑은 믿음·소망·사랑의 종교적 덕을 중시하였다. ㉡ 을은 신은 완전한 존재이고 신이 창조한 물질세계는 불완전하다고 보았다. ㉢ 병은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. ㉣ 갑은 아리스토텔레스, 을은 플라톤 사상으로부터 주로 영향을 받았다. ㉤ 갑, 을, 병은 모두 오직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영원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.

- ① ㉠      ② ㉡      ③ ㉢      ④ ㉣      ⑤ ㉤

#### ※ 확인 사항

-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